

입회와 서약 예절

양성은 평생의 과정이긴 하지만, 지원자와 서약 후보자들은 “초기 양성(지원기)” 와 “양성기(서약반)라고 불리는 식별의 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양성자는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영구적인 헌신을 향한 초기의 식별 여정에서 그들을 인도한다. 이 시기는 중요한 이정표들로 특징지어진다.

- 1- 입문과 환영식 (초기 양성[지원기]전에)
- 2- 입회식 (양성기[서약반]전에)
- 3- 서약식 -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영구적인 헌신 약속

여기에서는 입회식과 서약식에 중점을 둔다.

재속프란치스칸 양성중의 기념 예식은 재속회의 일원이 되어 복음적 삶을 영구히 살겠다고 맹세하는 원의를 보여준다.

- 입회예절은 재속회의 회원이 되는 순간이다 - 아직 영구적인 맹세를 하지는 않았지만 재속회에 결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타우 십자가를 걸고 우리 이름뒤에 OFS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초기 양성을 한지 9개월쯤 되었을 때, 지원자는 단위형제회 평의회에게 양성기(서약반)로의 입회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평의회원은 그들이 월례회 참석을 해 왔고 모든 기도나 다른 활동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청원자의 편지를 읽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평의회는 입회 수락을 투표로 결정한다.

입회 예절중에 지원자는 그들이 세례의 은총을 좀 더 강하고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들어 오겠다는 청원을 한다. 봉사자(회장)는 초기 양성기간을 시작해서 영구적인 헌신의 약속을 위해 계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약 후보자를 재속프란치스코회으로 받아들인다.

약 18개월의 양성기(서약반)를 거친 후에, 서약 후보자들은 다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에 대한 서약을 요청하고 복음의 삶에 대한 영구적인 헌신을 약속하겠다는 원의를 서면으로 평의회에 제출한다.

- 서약식으로, 우리는 회칙에 따라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영구적인 (평생의) 약속을 하게 된다. 서약이 우리를 재속프란치스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 그것은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경축할 뿐이다.

서약의 경축은 하느님의 활동이고 구원의 사건이다: 즉 구원이 믿는 이에게 미치는 순간이다. 그것은 프란치스칸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맹세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들안에 특별한 은총의 효과를 만들어주는데, 그 은총의 효과로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안에서 특별한 임무로 불림을 받는다. 서약의 전례적 행위는 세례와

확실히 연결시켜주며, 우리를 교회와 연결시켜준다. 서약식은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식이 우리를 프란치스칸으로 변화시켜주지 않는다. 단지 우리의 식별을 통해서 이미 우리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경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이 세례의 순간부터 가톨릭으로 또 프란치스칸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경축한다. 하느님은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행위에 기뻐하신다.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성령이 처음부터 우리의 성소의 씨를 심으셨다.

예식서에서 입회와 서약 예절을 읽으시오. 형제회안에서, 기도 파트너와 또는 일기장에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써 보시오.

- + 당신에게 입회와 서약 예절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 4가지 무엇입니까?
- + 입회와 서약시에 한 약속중에서 당신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성령께서는 아주 개인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입회와 서약 예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감동을 받아 변화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는지 나누어 보시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시오.